

고흥군, ‘더위 로그아웃·밥맛 로그인’ 햅쌀 할인 행사

8월 14일부터 24일까지 ‘고흥몰’서 햅쌀 10% 할인·무료배송



더위 로그아웃 밥맛 로그인 포스터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본격적인 햅쌀 출하철을 맞아 8월 14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고흥몰’에서 ‘더위 로그아웃, 밥맛 로그인’ 2026년 햅쌀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고흥몰에서는 2026년 산 햅쌀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무료배송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고흥의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햅쌀은 갓 수확한 쌀 특유의 윤기와 찰기, 구수한 풍미가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밥맛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햅쌀 수확 시기에 맞춰 사전 예약 주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문 상품은 8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흥 햅쌀의 우수한 품질과 신선한 밥맛을 알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햅쌀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유빈 기자

보성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532건 전수 조사

보성군은 13일 관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32건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258건을 정비해 48.5%의 정비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군은 군민의 안전과 하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나머지 시설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3월부터 관련 부서와 읍면이 참여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전담반(TF)’을 구성하고 관내 하천·계곡 532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하천·계곡 구역 내 무단 설치된 펜스상과 구조물, 영업 시설, 생활 편의 시설 등이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하천과 계곡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음식점 영업과 연계된 펜스 등 불법 상행위 시설 9건은 성수기 이전에 정비를 완료했다. 군은 앞으로도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윤성 기자

해남 팥깬채방 조성“책이 필요한 곳 어디든 찾아갑니다”

해남군립도서관이 일상 가까이에 책을 만날 수 있는 ‘팥깬채방’을 곳곳에 조성한다.

‘팥깬채방’은 지역의 각종 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책방이다. 50~100권 정도의 책을 비치하고, 공간의 특성과 이용자 수요에 맞춰 군립도서관에서 책을 선정, 제공한다.

필요할 경우 비치 도서도 교체해 다양한 오가는 이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필요에 따라 비치된 책도 교체해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우선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에게 맞춤형 문화정보와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표 관광지인 팥깬전망대, 팥깬해안자연사박물관, 팥깬황토나라테마존에 팥깬채방 1호점~3호점을 조성했다.

관광객들은 여행 중 잠시 쉬어가며 책을 읽거나, 여행지와 관련된 책을 살펴 보면서 팥깬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박종욱 기자

진도군, 청소년 취향 저격! “방학이 매일매일 즐거워!”

진도군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관내 청소년과 학부모 5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창의력을 증진하고 알찬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운영 강좌로는 ▲키 덮개(키캡) 및 휴대폰 손잡이(그립톡)를 제작하는 ‘톡톡 반짝 공방’ ▲아크릴화를 그리는 ‘창의 미술’ ▲점자와 라면기를 만드는 ‘흙손 공작소’ 등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강좌가 마련됐다.

특히, 13일에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한 조를 이루어 수제 햄버거를 만드는 ‘가족 요리 교실’을 추진하여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선사했다.

/이가영 기자

장흥,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비상 대응 체계 강화’

장흥군은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3분기 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을지연습 실시계획 ▲최근 안보상황 및 군 작전상황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협조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오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는 2026년 을지연습을 앞두고 비상소집, 전시지체편성, 상황조치연습, 실제훈련, 민방위훈련 등 주요 훈련계획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또한 정비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철거·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정근 기자

완도군, 을지연습 앞두고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민·관·군·경·소방, 주민 안전 확보 협력 방안 논의



2026년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사진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은 지난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방위 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신 완도군수, 최정욱 완도군의회 의장, 이범형 완도경찰서장, 김태환 완도해양경찰서장, 박보영 완도소방서장, 박주성 2대대장, 김보성 2해안감시기동대대장,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 기관 간 역할과 협력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실시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단계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 대비 태세

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전시 전환 절차와 비상 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민·관·군·경·소방의 통합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안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와 각종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응 역할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을 모았다.

김신 완도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 을지연습이 실제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통합방위 체계를 구축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